

【답사기】

역사의 기억을 안고 미래를 마주하는 요동의 항구

—만주학회 2025년 다롄, 뤼순 답사기—

김 태 연*

다롄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도 하고, 일제시기에는 만주 지역의 주요 도시이자, 안중근 의사가 생을 마감한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필자에게는 이번이 첫 방문이었다. 중국현대문학을 전공했지만 떠오르는 다롄 출신의 작가나 작품도 없었다. 굳이 연결하자면 2008년에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관동으로(關關東)》 정도가 생각날 뿐이었다. 그렇기에 이 답사는 호기심과 함께 시작되었다. 근대의 치열한 국제정세 속에서 다롄은 어떤 얼굴로 존재해왔던 것일까.

인천에서 한 시간 남짓 비행하면 다롄공항에 도착한다. 서울의 눅눅한 여름과 달리, 다롄은 뜨거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거의 없는 바람이 불어 매우 쾌적한 느낌이었다. 첫 답사지는 러시아풍물거리(俄羅斯風情街)였다. 항구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리로 들어서니, 붉은 벽돌과 흰 벽돌을 섞어 지은, 동유럽 풍 건축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이 바로 눈에 띈다. 러시아 풍물거리 초입에 자리잡은 다롄 미술관(大連美術館)이다. 이 건물은 본래 1902년 러시아의 동청운선회사(東淸輪船會社) 건물로 세워졌고, 1904년 일본이 다롄을 점령한 뒤에는 다롄군정서(大連軍政署) 등 행정 기관으로 사용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의 내부도 매우 궁금했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새로운 전시를 준비중이어서 관람이 불가했다.

*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러시아풍물거리는 1899년 ‘엔지니어 거리(工程師大街)’라는 이름으로 처음 조성되었다가, 2000년 관광지로 재정비되었다. 약 470미터 구간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러시아와 유럽식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 거리에는 대부분 러시아 음식과 간식, 그리고 러시아를 연상시키는 털모자 따위를 파는 가게들이었다. 중국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목 좋은 곳에는 스타벅스가 자리잡고 있었지만, 거리 중간쯤에는 ‘푸시킨 문화 커피숍(普希金文化咖啡館)’이라는, 러시아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커피숍도 눈길을 끈다. 유난히 흥미롭게 보여진 것은 거리 곳곳에 있는 의상대여점이었다. 경복궁 일대에 관광객들을 겨냥한 한복대여점이 성업중이듯, 중국의 주요 관광지에도 곳곳에 관광객들에게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漢服)를 빌려주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메이크업과 헤어를 해주는 가게들이 많은데, 이 거리는 ‘러시아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푸 대신 유럽 귀족들의 드레스 같은 의상들을 빌려주는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그림 1] 러시아거리의 사진촬영용 드레스 대여점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다롄대학부속 중산의원(大連大學附屬中山醫院)이었다. 이곳은 본래 1907년 일본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세운 만철다롄병원(滿鐵大連病院) 자리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식 병원으로, 일본인 의사들이 근대 의학과 식민 통치를 결합한 모델을 실험하던 곳이었다. 건물 앞에는 캐나다 출신의 의사

노먼 베순(Norman Bethune, 白求恩)의 흉상이 서 있었다. 베순은 1938년 중국공산당 팔로군에 합류해 의료활동을 하다가 1939년에 사망한 인물이다. 마오쩌둥은 그를 기려 「베순을 기념하며(紀念白求恩)」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 만철다렌병원과 노먼 베순은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 아마도 베순은 중국에서 ‘희생적인 의료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인물이기에 이 병원 앞에도 베순의 정신을 기려 그의 흉상을 세운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림 2] 다론펬대학부속중산의원 앞의 노먼 베순 흉상

병원을 비롯해 이 일대는 과거 만철 본사가 있던 구역으로, 지금도 여러 건물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중심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본사 건물이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뤼순-창춘(長春) 구간의 철도 운영권과 조차지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받은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대리석과 화강석으로 지어진 신고전주의 양식의 이 건물은 현재 ‘다론펬철도집단유산공사(大連鐵路集團遺產公司)’가 사용하고 있다. 건물 밖에 세워진 표지석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옛터(舊址)’라고 쓰여 있다.

그 맞은편의 붉은 벽돌 건물은 과거 만철도서관(滿鐵圖書館)으로, 현재는 다론펬도서관(大連圖書館)으로 쓰이고 있다. 외부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유럽풍의 목조 인테리어와 낮은 천장 등이 이 건물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가운데, 열람실에는 시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앉아 책을 읽고 있어 레트로한 분위기를 물씬 자아낸다.

루쉰로(魯迅路)와 중산광장(中山廣場)

이 도서관과 만철 옛터가 위치한 도로는 중산광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사실 필자의 호기심을 자아낸 것은 루쉰로(魯迅路)라는 이 도로명이었다. 루쉰은 생전 다롄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바가 없는데, 왜 다롄의 시 중심부에 있는 이 도로의 이름이 루쉰로인 걸까? 원래 일본이 점령하던 시절, 이 길은 치요다초(千代田町), 메이지초(明治町)와 동공원(東公園)으로 나뉘었는데, 1949년 이후에 세 구역을 합병하면서 루쉰로로 명명했다고 한다. 루쉰의 이름을 붙인 것은 일본이 점령했던 이 길에 식민의 기억을 씻어내고자, ‘민족혼’(民族魂)으로 호명되는 루쉰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기탁하고자 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다.

루쉰로의 끝에는 중산광장(中山廣場)이 펼쳐진다. 파리 개선문 일대를 본떠 설계된 방사형 도시 구조로, 로터리를 중심으로 여덟 갈래의 도로가 뻗어 있다. 일본이 중국 동북 지역 일대에 건설한 근대도시의 디자인 형태가 여기에도 구현되고 있었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은 식민지 시기의 근대건축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건물이 야마토호텔(大和旅館)이다. 1914년 남만주철도 계열의 고급 호텔로 건립된 다롄 최초의 ‘근대적 호텔’로, 다롄을 방문한 유명인들이 이곳에서 숙박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최근까지 ‘다롄호텔(大連賓館)’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했으나,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한참 리모델링 공사중이었다. 공사장을 둘러싼 안내판을 보니, 글로벌 체인인 페어먼트 소속의 5성급 호텔로 재개장할 예정이란다. 안내판에 그려진 예상도를 보니 매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의 이미지이다. 이곳 말고도 다롄 시내 곳곳에는 외국계 체인의 5성급 호텔들이 매우 많이 보여서 다롄의 경제력을 실감하고 있던 차였다. 옛 야마토 호텔의 리모델링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

광장 서쪽에는 조선은행 다롄지점(朝鮮銀行大連支店) 건물이 있다. 1920년에 세워

진 이 건물은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은행이 만주 진출의 교두보로 설치한 금융기관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후로는 중국인민은행의 지점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중국공상은행(工商银行)으로 쓰이고 있다. 그 옆에는 요코하마정금은행(横濱正金銀行) 다렌지점 건물인데, 현재는 중국은행(中國銀行)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쪽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다렌지점, 북쪽에는 대청은행(大清銀行) 다렌지점이 자리해 있다. 각각 현재는 교통은행(交通銀行)과 중신은행(中信銀行)이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이 신고전주의와 아르데코 양식으로 지어진 석조건물로, 유럽식의 모던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이 모든 장소들은 다렌항에서 시작하여 다렌역을 걸쳐 저 북쪽 만주 지역으로 향해 뻗은 철로 부근에 위치해있다. 근대사에서 수도 없이 언급되는 ‘만주 철도’, 그 만주철도를 따라 건설된 근대의 도시공간이 지금까지 다렌의 생활공간 안에 역사와 함께 녹아들어 있었다.



[그림 3] 중산광장의 근대 건축들

다렌 시내에서 차로 한 시간쯤 달리면 뤼순에 닿는다. 첫 방문지는 뤼순수사영(旅順水師營)이다. 본래 청나라 해군의 병영이었으나 1894년 청일전쟁 중 일본군이 점령했고, 1904년 러일전쟁 때 다시 격전지로 변했다. 1905년 1월, 바로 이 수사영에서 러시아 극동함대 사령관 스테셀이 일본 제3군 사령관 노기 마레스케 앞에

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파란만장한 역사의 기억과 달리, 현재 수사영 건물은 벽돌과 회벽으로 쌓은 건물에 짙푸른 지붕을 씌운 소박한 모습 그대로였다. 밖에서 보면 이곳이 역사유적지라는 것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는 안내판이나 변변한 부속건물도 없었다. 답사 기간 동안 우리를 안내했던 노련한 가이드조차 이 곳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림 4] 수사영

하지만 이 단출한 수사영과 대조적으로 러일전쟁의 역사가 으리으리하게 아로 새겨진 장소는 백옥산(白玉山) 정상 위에서 찾을 수 있었다. 휘순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옥산 전망대 옆에 우뚝 솟아 있는 백옥산탑(白玉山塔)이다. 이것은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전몰자 추도탑으로, 1907년에 착공해 1909년에 완공되었다. 원래 이름은 ‘표충탑(表忠塔)’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었던 것을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한 뒤, 중국에서 ‘표충탑’ 세 글자를 도려내버리고, 그 대신에 ‘백옥산탑’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마치 한 때 이 탑에서 뿜어져 나왔을 일본군대의 강한 기운을 누르기라도 하는 듯, 전망대 위에 설치된 ‘휘순백옥산’이라고 쓰여진 닷 모양의 조형물 위에는 중국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 별 모양이 큼지막하게 달려있었다.



[그림 5] 백옥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뤼순강

백옥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산 아래에 뤼순역(旅順站)이 자리하고 있다. 1903년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남만주 지선을 완공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1905년 일본이 뤼순을 점령한 뒤,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종착역으로 새롭게 완공되었다.

현재 뤼순역은 더 이상 열차가 다니지 않는다. 역과 연결된 철로는 끊긴 채, 도시 외곽의 조용한 길목에 덩그러니 남아 있다. 그러나 전혀 역전 같지 않은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서다 보면, 불현듯 나타나는 역사(驛舍)의 모습이 시선을 압도한다.

건물은 작은 규모이지만, 짙은 노란색 벽과 흰색 창틀, 그리고 선명한 초록빛 지붕 위로 솟아 있는 돛이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미를 자아낸다. 러시아식 아치 창과 일본식 실용 설계가 절묘하게 절충된 건축 양식으로, 당시 제국이 ‘근대의 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운행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이곳은 지금 ‘SNS 성지’가 되었다. 레드노트(小紅書)나 더우인(抖音) 같은 중국의 SNS에서 소위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배경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문과 창문은 굳게 잠겨 있지만, 유리 너머로 비치는 텅 빈 대합실의 내부는 오히려

려 이 건물이 현실과 동떨어져 역사 속에 봉인된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림 6] 뤼순역

뤼순박물관(旅順博物館)의 전신은 1915년 일본이 설립한 ‘물산진열소(物産陳列所)’이다. 이듬해인 1916년에는 관동도독부 만몽물산관(關東都督府滿蒙物産館)으로 개칭하고, 1917년부터 일반에 개방하였다. 본관 건물은 원래 러시아가 장교집회소로 건설하던 것을, 일본이 점령 후 마무리해 완공한 유럽풍 석조건축물이다.

박물관 초기에는 이 지역의 자연과학 자료들과 고고학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초기 전시품은 동물, 식물, 광물, 수산, 풍속, 참고자료와 도서 이렇게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고고학 자료와 역사문물은 따로 분관을 두어 소장하였는데, 1930년대 이후로는 동물, 식물, 광물은 없애고 문물 위주의 박물관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전시품은 신장(新疆) 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미라, 이른바 ‘마른 시신(乾屍)’이다. 이집트의 미라는 사체에서 내장을 다 꺼낸 뒤 방부처리를 한 것과 달리, 이 미라는 방부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건조한 기후 속에서 자연 탈수되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시실에는 남녀 한 구씩, 두 구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나란히 놓여 있다. 이 미라들이 뤼순에 있게 된 경위는 제국주의적 수집의 전형적인 사례다. 1902년 일본의 오타니(大谷)가 부하들을 이끌고 실크로드 일대를 탐험하면서 무려 6,731kg에 달하는 문화재를 도굴하였다. 이 미라들은 오타니 탐험대가 투루판 인근의 아스타나(阿斯塔那) 고분에서 도굴한 뒤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현재 뤼순박물관은 약 10구의 미라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2구만 공개 전시 중이다. 피부와 머리카락, 옷의 주름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미라 바로 옆에 는 두 사람의 생전 모습을 상상 복원한 인체 모형까지 세워놓았다. 이 두 사람은 투루판 지역의 고대 왕조인 고창(高昌) 왕국의 귀족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신들의 시신이 약 15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전시품’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상상이나 했을까? 차마 사진을 찍을 엄두가 안 난다.

뤼순 시 남쪽 언덕에는 뤼순감옥(旅順監獄)이 있다. 정문에는 ‘뤼순일러감옥옛터(旅順日俄監獄舊址)’라는 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다. 이 감옥은 러시아가 1902년에 건립을 시작했으며, 러일전쟁 후 일본이 점령한 뒤 대대적으로 확장해 완공했다. 건물 복도 한쪽 벽은 흰 벽돌, 다른 한쪽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흰 부분은 러시아가 지은 구관이고, 붉은 부분은 일본이 증축한 구관이다. 한 건물 안에 두 제국의 흔적이 공존하는 셈이다. 이 감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바로 안중근(安重根) 의사 관련 전시관이다. 이 공간은 감옥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규모가 크다. 안중근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연표와 함께 그의 초상화, 유묵, 재판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고,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사형장은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안중근 외에도 신채호, 이회영의 흉상과 더불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자세하게 전시하고 있었다. 모든 전시에는 한글 안

내문이 아주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었다.

안중근 기념공간을 지나면, 감옥의 또 다른 전시 구역은 중국공산당 관련 항일 운동 전시관이다. 이곳에는 1920~30년대 뤼순·다렌 지역에서 활동했던 중국공산당 초기 혁명가들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감옥의 또 다른 중심은 노역장이었다. 수감자들이 각종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자취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전시장 한 가운데에 대형 인쇄기가 놓여 있다. 수감자들은 이 인쇄기로 관동도독부와 감옥의 각종 문서를 찍어내는 데에 동원되었다. 식민통치의 행정이 현지인들의 육체를 동원한 노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감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뤼순재판소(旅順法院)가 있다. 1909년 12월부터 1910년 2월까지 안중근의 재판이 열린 장소이다. 당시에는 일본관동도高等法院과 지방법원으로 사용된 곳이다. 내부에는 당시 재판정의 모습이 복원되어 있었고, 안중근의 모습이 담긴 기록화와 재판 관련 자료도 전시되어 있다. 벽에는 저우언라이의 1963년 〈중국과 조선의 역사관계에 대한 담화〉에서 “청일전쟁 이후, 중국과 조선 양국 인민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은 금세기 초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 어록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적혀 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중-조선”을 “중한”으로 번역한 것이 눈에 띈다.

다렌에서의 마지막날 저녁에는 싱하이(星海) 광장을 짧게 방문하였다. 해변가를 따라 고급 아파트와 호텔, 상가,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었다. 화려한 야경 속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공원에 나와 먹거리와 각종 구경거리를 즐기고 있었다. 공원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울 데가 없을 지경으로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주말도 아니고,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공원 일대가 매우 붐볐다. 찾아보니 다렌 인구 750만 가량 된다. 낮에 증산광장과 시내 중심가를 다닐 때도 다렌의 경제규모가 상당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지만, 밤에 싱하이광장에 모여 즐기는 인파를 보니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침략과 식민의 역사, 전쟁과 수탈의 역사는 이 화려한 야경 속에 이미 잊혀진지 오래였다. 이 화려한 야경 속으로 다렌의 역사는 지금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림 7] 상하이 광장의 야경